

SNS이용과 미디어 이용시간 간의 관계 분석 : 이용제한 및 대안활동을 매개변인으로

Analyse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NS use and Media use time using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김주경*, 이승희**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정책연구실/고려대학교 교육학과*,
한국정보화진흥원 인터넷중독대응센터/건국대학교 교육학과**

Ju-Kyoung Kim(helloming@daum.net)*, Seong-Hee Lee(denma2@daum.net)**

요약

본 연구는 최근 급증하는 청소년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이용이 인터넷을 포함한 미디어 이용시간과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그 관계구조 속에서 부모의 이용 제한과 대안활동 참여가 어떠한 매개효과로서 작동되는지를 검증하고자 한다. 이는 청소년의 올바른 미디어 이용 유도를 위해 부모를 통한 이용지도나 활동적 대안활동에 초점을 두는 다양한 가이드와 프로그램이 과연 효과가 있는 것인가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기 위함이다.

분석을 위해서 본 연구는 전국 초, 중, 고등학교 청소년 1572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한국미디어패널조사」 자료를 이용하였다. 최종 분석대상은 성별은 남학생이 818명, 여학생이 754명이었고, 초등학생 672명, 중학생 416명, 고등학생 484명이었다. 연구에서 제안한 모형의 적합도 검증은 위해 구조방정식을 통해 분석한 결과, SNS 이용은 미디어 이용시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대안활동을 매개로 하여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보호자의 이용제한은 미디어 이용시간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는 진화하는 스마트미디어 환경에서는 더 이상 미디어 이용시간의 감소를 위한 부모의 이용 제한 방식과 대안활동 참여가 유의하지 않은 이유를 찾고, 더 나아가 국가와 사회가 미디어중독 현상을 이해하고 해소 대안을 찾는 데 의미있는 정책 시사점을 제안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

■ 중심어 : | 인터넷 이용목적 | 미디어 과다사용 | 미디어 이용시간 | 미디어 이용통제 | 대안활동 |

Abstract

This research observes how an adolescent's usage of social network services is related with media use time, and also tries to verify how a parent's participation in acting to limit usage time serves as a mediating effect. For this analysis, data from The Korean Information Society Development Institute [Korea Media Panel Research] was used, being a survey conducted on 1,572 students from primary to secondary and high schools nationwide. The subjects' gender in the final analysis was 818 male students and 754 female students. In addition, primary school students consisted of 672 individuals, 416 were from secondary and 484 from high schools. To verify the appropriateness of the model proposed in this research, analyzed through the structural equation, using social network services(SNS) was not shown to have an effect on media usage time. However, there was an indirect effect from the use of alternative activities. In addition, the parent's limitation of usage showed no effect on media use time. This research attempts to identify the reasons why parents' limiting the usage time, along with alternative activities, do not have any significant effect in reducing media usage time in this era of smart media evolution. Further, this research hopes to suggest meaningful and political implications for the nation and society to understand and resolve media addiction.

■ keyword : | Purpose of Internet Use | Media Overuse | Media Use Time | Use Control | Alternative Activity |

I. 서론

우리나라는 1990년대부터 ‘산업화는 늦었지만, 정보화는 앞서가자’라는 구호를 앞세워 IT산업에 많은 투자와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 결과 국내 인터넷이용률은 78%를 상회하고, UN 전자정부 발전지수 및 온라인 서비스 지수 1위¹⁾ 등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선진적 인터넷 인프라를 보유하고, 각 국에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을 수출하고, 구축 컨설팅 및 담당자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정보화 강대국으로 성장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IT산업의 발달이 혁신적으로 일상을 변화시키고 생산을 효율적으로 증대하는데 혁혁한 공을 세운 것은 명백하나, 이용자들의 미디어 과다사용 및 중독 등의 역기능을 동반하였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정부가 매년 실시하는 인터넷중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전체 인터넷중독률은 7.2%로 대략 중독자 수는 대략 220만 명으로, 이 중 청소년 인터넷중독률은 10.7%로 중독자 수는 무려 75만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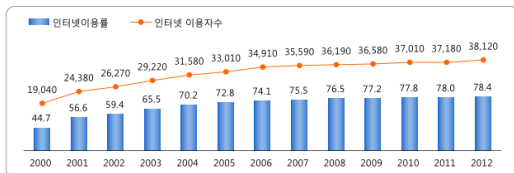


그림 1. 국내 인터넷이용률 및 이용자 수 추이
(출처: 한국인터넷진흥원, 2012)

특히 최근의 인터넷은 스마트 기술과의 융·복합을 통해 끊임없이 진화하면서 타인과 간편하고 즉각적인 소통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소속감 및 안정감의 형성, 존재의 재확인, 자기 과시 등을 위해 많은 시간을 쏟도록 만들고 있다²⁾. 이러한 이유로 성장기 청소년들에게 온라인과 현실을 잘 구분하지 못하는 일종의 인지장애

(Disturbance of Reality)를 경험하거나, 특별한 이유 없이 온라인 확인(online checking) 등을 반복하는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정보화와 청소년 미디어 이용관계를 분석한 지금까지의 많은 연구들은 청소년의 인터넷 접속 빈도와 이용시간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과다사용이 그들의 성장과 적응, 학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23]. 따라서 신체는 물론 심리적으로 미성숙한 청소년들에게 인터넷 과다사용³⁾은 일상에 다양한 장애를 유발하는 성장 저해요소로서 이를 예방하고 건강한 미디어 이용생활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돕는 구체적 수단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나 태어나면서부터 스마트미디어를 자연스럽게 경험하고 이용해온 스마트 네이티브(smart native)⁴⁾들에게 과거와 같은 강제성을 지닌 인터넷 이용제한 방식은 미디어 과다사용을 해소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며 오히려 반발과 불순응 등의 역효과를 발생시킬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관점에서 청소년의 소통 목적의 미디어 이용이 이용시간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고, 부모의 이용 통제와 오프라인 대안활동이 어떠한 매개적 기능으로 작동될 수 있는지 탐색해보고자 한다. 이는 진화하는 스마트사회에서 미디어에 대한 청소년의 요구와 이용현실을 면밀히 분석하여, 건강한 미디어 이용생활을 주도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조성해 주기 위함이다. 또한 더 나아가 앞으로 국가차원의 미디어중독 예방 및 해소 정책이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추진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이상의 연구목적에 따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1: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이용과 미디어 이용시간은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1) 인터넷이용실태조사(KISA, 2012), e-나라지표 (<http://www.index.go.kr>)

2) 전체 응답자의 49.0%, 청소년 인터넷중독자 중 52.4%가 인터넷 주 이용목적이 타인과의 소통을 위한 '인스턴트 메신저 이용'이라고 응답(한국정보화진흥원, 2012)

3) 미디어 중독은 공식적인 질병으로 등재되지 못해 합의된 정의와 기준이 부재하다. 이러한 이유로 과다사용 또는 과몰입 등과 혼용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인터넷을 과다 사용하여 인터넷 사용에 대한 금단과 내성을 지니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일상생활의 장애를 유발하는 상태"(한국정보화진흥원, 2002)의 정의에 근거한다.

4) 스마트 네이티브(smart native)는 미국의 교육학자인 마크 프렌스키(Marc Prensky)가 2001년에 저술한 논문 "Digital Natives, Digital Immigrants"에서 처음 사용한 "디지털 네이티브(smart native)"와 유사한 용어로 "태어나면서부터 자연스럽게 스마트미디어를 경험하고 일상에서 자유자재로 활용할 수 있는 세대"를 말한다.

연구문제2: 부모의 미디어 이용제한은 이용시간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연구문제3: 오프라인 대안활동은 미디어 이용시간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II. 이론적 배경

1. 미디어의 이용목적과 이용시간 간의 관계

미디어 이용시간은 개인의 심리상태 및 성격, 이용목적, 이용동기, 이용환경, 콘텐츠 특성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지만, 이용목적은 이용자의 의지와 욕구가 포함된 개념으로 이용시간에 큰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또한 이용목적에는 미디어 이용에 대한 개인의 기대가 내포하고 있는데, 기대의 크기가 크고 이용 목적이 모호할수록 미디어 이용시간이 늘어나는 특징을 가진다.

다양한 스마트미디어의 발달로 이용자의 융·복합적 미디어 이용환경이 가능한 상황에서 단순히 사용시간만으로 중독이나 과다사용의 문제를 적용하기는 어렵다[2]. 그러나 일반적으로 미디어중독자가 일반사용자에 비해 미디어 이용시간이 길고 오랜 시간 몰입한다는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참고할 때, 미디어 이용시간이 길수록 더 많은 위험 가능성이 있다고 정리할 수 있다.

특히 미디어가 이용자의 과도한 집중과 몰입을 유도하는 즉시성, 반응성, 보상성 등의 특징을 지닐 때 이용시간은 더욱 증가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청소년들은 미디어 이용 시에 뚜렷한 목적이 존재하고, 이용에 대한 기대가 낮은 인터넷 동영상 강의, 과제를 위한 정보검색, 영화나 음악 감상보다 친구와의 인스턴트 대화, 사진 공유와 댓글달기, 존재를 과시하고 확인하려는 블로그 활동 등에 더 깊이 몰입하고 많은 시간을 할애하게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인희(2001)는 소통과 교류의 미디어 이용목적과 미디어 이용시간 간의 정적(+) 관계구조를 보다 근본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과시”, “체면”, “동조”와 같은 한국 특유의 문화와 정서가 배경에 있다고 하였다[13]. 이는 미디어 이용자는 개인의 욕구충족 및 현실적 필요에

의해 미디어를 활용하는 능동적 행위 주체로서, 극단의 경쟁적 환경에서 본인의 정체성을 끊임없이 확인하고, 타인으로부터 이해받고자 하는 소통의지가 다른 어떤 목적에 우선할 수 있음에 기반 한다.

특히 대학입시에 대한 치열한 경쟁적 환경에서 생활하는 우리나라 청소년들에게 온라인 소통방식은 직접적 소통방식에 비해 더욱 간편하고, 편안하며, 자유롭게 인식될 것이다. 이러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의 매력이 청소년 이용자의 미디어 과다사용을 지속적으로 유발하여 정보화 사회에서의 또 다른 ‘개인의 원자화(bowling alone in smart society)’⁵⁾가 우려된다.

2. 부모의 미디어 이용제한과 미디어 이용시간 간의 관계

미디어중독은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지만 다수의 학자들은 이용시간을 주요한 영향요인으로 밝히고 있다. 그 이유는 앞서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미디어 과다이용자가 중독자는 아니지만, 미디어 중독자는 대부분 긴 시간 미디어를 사용하고 있었다는 여러 연구결과에 근거한 것이다. 최근의 스마트기술은 이용자가 동일 콘텐츠를 여러 가지의 미디어를 통해 지속적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거나, 일상에서 학습, 업무, 일정관리, 여가, 대화 등을 모두 단일 미디어로 가능하도록 하여 이용자의 미디어 이용시간을 점점 더 증가시키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들의 미디어 과다사용 문제는 중독의 위험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며, 보호자가 자녀의 미디어 이용을 관리하고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들에게 있어 미디어란 학습, 놀이, 또래 간 소통 등을 가능하게 하는 주요한 수단이기 때문에 이용시간을 둘러싼 부모와 자녀 간의 갈등과 타협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최근에 부모-자녀 관계와 청소년 자녀의 미디어 이용행태 간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가 증가하고 있

5) 개인의 원자화란, 미국의 정치학자인 미국의 정치학자 로버트 퍼트남(Robert David Putnam)이 자발적 사회참여가 감소되고 있는 20세기 후반의 미국 사회를 분석한 책인 “Bowling Alone(나 홀로 볼링)”의 내용을 핵심적으로 표현한 용어로, 인간이 점점 스스로 고립되고 소외되는 현상을 일컫는다.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정보화가 인간을 또 다시 원자화하여 사회 자본을 축소할 것에 대한 우려를 표현하고자 용어를 차용하였다.

는데, 부모와의 긍정적 관계는 자녀의 심리적 안정감을 형성하여 일상의 일탈을 예방할 수 있는 일종의 보호요인으로 작용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부모의 미디어 이용제한 방식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자녀의 행위에 대한 부모의 관심과 인식이 촉진되어야 하고, 이러한 관심과 인식을 자녀가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하는 지속적 의사소통에 기반하여야 한다[18]. 그러나 이는 오랜 시간을 필요로 할 뿐 아니라, 입시 위주로 돌아가는 우리 일상에서 적용하기에 다소 번거롭고 어려운 과정이다. 때문에 우리나라 학부모 대부분은 자녀의 미디어 과다사용에 대해 민감하고 과격하게 반응하고, 당장 이용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지배적 이용 통제 방식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강제적 이용제한이 반복되면 청소년 자녀는 부모의 미디어 이용에 대한 긍정적인 조언과 관심조차도 일방적 간섭이나 강압적 통제로 받아들여 더 이상의 문제행위에 대한 협상과 타협이 불가능한 상태에 이른다[36]. 다시 말하면 부모의 잘못된 자녀 통제방식은 자녀와의 관계를 악화시키고 오히려 비행을 촉발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부모의 미디어 이용지도의 태도가 적대적이고 통제적일수록 자녀의 문제적 미디어 이용성향이 강화되어 과다사용의 제한효과를 미미할 것이다.

3. 대안활동과 미디어 이용시간 간의 관계

기존의 미디어이용과 대안활동간의 관계를 연구한 논문들은 오프라인에서의 활동이 미디어의 이용시간을 줄여주는 부적 상관성이 있음을 분석하고 있다. 유비(2013)의 연구는 일상에서의 대안활동이 충분히 의미 있는 활동(meaningful engagement)인 경우, 동아리 활동과 같은 또래관계를 강화하는 오프라인 대안활동에의 참여가 게임중독 같은 미디어 역기능을 예방할 수 있다는 결과를 보여주었다[14]. 서경현 외(2012)는 남자 청소년에게 체육활동이 인터넷 게임 이용시간을 줄여 주어 중독을 예방할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체육활동은 과도한 인터넷게임 등으로 인한 미디어 스트레스를 줄여줄 수 있는 유의미한 매개 변수임을 검증하였다[8]. 그 밖에도 여정윤(2012)과 조영호 외(2010) 등 다수의

연구에서 음악, 스포츠, 미술 등의 다양한 대안 활동이 과도한 미디어사용 및 중독의 문제를 해소하는 긍정적 효과와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였다[11][20].

그러나 양돈규(2013)는 청소년의 인터넷중독 경향에 따른 대안관계활동 및 만족도의 차이를 분석하면서 온라인 상의 대인관계 접촉시간이 길어질수록 관계에 대한 만족도는 감소하지만, 오프라인 대인관계 접촉시간과 온라인 대인관계 접촉시간은 서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가진다고 밝혔다[10]. 이는 최근의 미디어 발달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구분을 모호하게 만들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다시 말하면, 온라인을 통한 공간 확장으로 인해 미디어는 시공을 초월하는 타임머신과 같은 유능한 기기가 되었고, 이로 인한 온·오프라인 인간관계의 확장과 일상과 여가의 확장이 이루어진 탓으로 여겨진다.

전통적 대안활동이 미디어 이용을 차단하는 오프라인 활동으로 만들어졌다면, 시공을 초월하는 스마트미디어 환경에서의 대안활동이란 그저 온라인 일상에 지친 청소년에게 즐거움을 주는 오프라인 활동은 물론, 오프라인 일상에 지친 온라인 활동의 개념으로 확장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이유로 전통적 대안활동은 더 이상 미디어 이용시간을 줄이기보다 오히려 정적인 관계가 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앞으로의 대안활동은 청소년에게 미디어 이용가치를 높이고, 스스로 온오프라인 일상을 주도할 수 있도록 돕는 방향으로 개발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3. 연구방법

1. 분석자료

본 연구의 분석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한국 미디어 패널조사」 중 「2012년 한국 미디어 패널조사」 자료를 사용하였다. 한국 미디어 패널조사의 모집단은 조사시점 현재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모든 가구 내 만 6세 이상 가구원 전체로 설정하였다.

한국 미디어 패널조사의 표본추출틀(sampling frame)은 2005년 인구주택 총조사 결과의 전체 조사구

중 심, 기숙시설, 특수사회시설, 관광호텔 및 외국인 조사구를 제외한 아파트 조사구와 일반조사구이다. 표본 추출방식은 층화 2단 확률비례 계통추출법으로 행정구역에 따라 구분한 1차 층화와 조사구의 특성에 따라(아파트 조사구, 일반 조사구) 또는 (농립어가 조사구, 비농립어가 조사구)로 구분하여 2차 층화로 구성되었다.

한국 미디어 패널조사는 조사원이 표본으로 선정된 가구를 방문하여 설문지에 대한 응답 내용을 기입하는 가구방문 면접조사로 종이와 연필을 이용한 방식(Paper and Pencil Interviewing: PAPI)조사로 수행하였다. 가구 설문지는 면접원이 가구주와 현장에서 같이 작성하도록 하였으며 개인설문지는 3일간의 미디어 다이어리 작성 이 있는 관계로 3일간 유지하여 응답자가 직접 기입하도록 하였다. 최종분석에서 사용된 본 연구의 대상은 초등학생 672명, 중학생 416명, 고등학생 484명으로 총 1572명이다.

2. 분석방법

자료 분석은 SPSS 18.0과 AMOS 18.0 통계 프로그램을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이용이 미디어 이용시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대안활동과 보호자의 이용제한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구조방정식 분석방법을 사용하였다. 기술적 통계 분석을 실시하여 분석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주요 변수들의 실태를 확인하였으며, 변수 간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변수 간 경로관계는 AMOS 18.0 프로그램으로 검증하였다. 구조방정식의 추정방법은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 ML)을 사용하였다. 최대우도법을 사용하려면 결측치(missing data)가 없어야 하므로 결측치가 빈번히 발생하는 종단연구에서 최대우도법을 그대로 사용할 수 없다. 본 연구에서는 결측치가 있는 자료를 분석하기 위해 기대-최대화(expectation-maximization; EM) 추정방법을 이용하였다. 이는 두 단계로 수행된다. E(기대)단계에서는 결측치들이 일련의 회귀방정식에 의해 예측된 점수로 대체된다. 여기서 회귀 방정식의 특정한 사례에 대해서 결측된 변수를 나머지 변수들에 대하여 회귀시키는 것이다. M(최대화)단계에서는 대체된 데이터 전체를 기

반으로 최대우도추정을 한다. 이 두 단계는 M단계에서 안정된 값이 나올 때까지 반복된다.

연구모형 검증을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고, 변인들간의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를 검증하였다. 연구모형의 적합도 검증에 사용한 적합도 기준은 χ^2 값과 적합도 검증을 위해 검토의 대상으로 삼는 TLI(Truker-Lewis Index), CFI(Comparative Fit Index), RMSEA(Root Mean Square of Error Approximation)의 적합도 지수를 활용하였다.

3. 분석결과

3.1 분석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분석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의 [표 1]과 같다. 우선 성별은 남학생이 818명(52%), 여학생이 754명(48%)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다소 많았다. 학년을 살펴본 결과 초등학생 672명(42.9%), 중학생 416명(26.5%), 고등학생 484명(30.8%)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313명(19.9%)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211명(13.4%), 대구 132명(8.4%), 경북 112명(7.1%), 인천 112명(7.1%), 부산 94명(6.0%), 경남 82명(5.2%), 충남 74명(4.7%), 대전 68명(4.3%), 충북 61명(3.9%), 전남 56명(3.6%), 전북 52명(3.3%), 광주 59명

표 1. 분석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변수	구분	빈도	%
성별	남자	818	52
	여자	754	48
학년	초등학생	672	42.9
	중학생	416	26.5
	고등학생	484	30.8
지역	서울	211	13.4
	부산	94	6.0
	대구	132	8.4
	인천	112	7.1
	광주	59	3.8
	대전	68	4.3
	울산	54	3.4
	경기	313	19.9
	강원	43	2.7
	충북	61	3.9
	충남	74	4.7
	전북	52	3.3
	전남	56	3.6
	경북	112	7.1
경남	82	5.2	
제주	49	3.1	

(3.8%), 울산 54명(3.4%), 제주 49명(3.1%), 강원 43명(2.7%) 순으로 나타났다.

3.2 주요변수의 기초통계 결과

본 연구의 구조모형을 검증하기 위한 기초분석으로 변수들 간의 평균 및 표준편차, 왜도, 첨도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의 [표 2]와 같다. Curran et al.(1996)에 의하면 왜도는 절대값 2이상, 첨도는 절대값 7이상일 경우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으며[27], SPSS에서 보고하는 첨도의 값은 정규분포에서 표준화된 첨도지수의 값 3을 미리 빼고 보고한 값이므로 해석할 시에는 이를 더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다[32]. [표 2]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 사용한 변수들의 왜도와 첨도가 구조방정식 모형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정상분포 조건을 충족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 주요변수의 특징 (N=1572)

잠재 변수	측정변수	평균	표준 편차	왜도	첨도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이용	블로그	.11	.32	2.47	4.08
	SNS	.24	.42	1.25	-.45
	카페	.23	.42	1.32	-.27
대안활동	스포츠/야외 활동	3.58	2.28	.08	-1.42
	친교 활동	4.05	2.26	-.23	-1.22
	사회/정치 활동	1.31	.94	3.06	8.26
	종교 활동	1.94	1.87	1.59	.76
	창작적 취미활동	2.73	2.28	.81	-.86
	공연/문화 관람활동	2.77	1.59	.10	-1.56
	스포츠 관람 활동	1.49	1.80	2.35	5.07
	여가로서의 쇼핑활동	2.87	1.83	.16	-1.63
보호자의 이용제한	인터넷 강제	3.45	.54	-1.46	2.40
	게임 강제	3.80	.54	-2.65	5.97

3.3 주요 변수들간의 상관관계

구조모형을 검증하기 위한 기초분석으로서 각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의 [표 3]과 같다. 분석 결과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이용환경은 매개변수인 대안활동과 보호자의 이용제한과 각 측정변수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를 갖고 있었다.

대안활동은 매개변수인 강제정도의 측정변수와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왔다.

표 3. 주요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분석 (N=1572)

내용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SNS 이용													
1	1												
2	.292**	1											
3	.301**	.403**	1										
대안 활동													
4	.020	.089**	.157**	1									
5	.059*	.174**	.192**	.311**	1								
6	.116**	.126**	.143**	.119**	.105**	1							
7	.022	.079**	.046	.125**	.112**	.102**	1						
8	.134**	.052*	.119**	.267**	.211**	.140**	.244**	1					
9	.050*	.129**	.158**	.253**	.236**	.174**	.168**	.365**	1				
10	.002	.044	.086**	.281**	.132**	.080**	.030	.095**	.228**	1			
11	.048	.183**	.179**	.139**	.234**	.135**	.061*	.138**	.307**	.171**	1		
이용 제한													
12	-.067**	-.015	.008	.022	.016	-.038	-.045	.004	-.017	.000	-.021	1	
13	-.023	.041	.023	-.063*	.027	.023	-.119*	-.120**	-.056*	-.030	.015	.459**	1

*p<.05, **p<.01

(1: 블로그 이용, 2: SNS 이용, 3: 카페 이용, 4: 스포츠/야외활동, 5: 친교 활동, 6: 사회/정치활동, 7: 종교활동, 8: 창작적 취미활동, 9: 공연/문화관람, 10: 스포츠 관람, 11: 쇼핑, 12: 강제적 인터넷 이용제한, 13: 강제적 게임 이용제한)

3.4 측정모형 분석

본 연구에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이용, 대안활동, 강제정도, 미디어 이용시간의 관계에서 측정모형의 적합성을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을 통해 살펴본 결과는 다음의 [표 4]와 같다.

모형의 평가방법에는 χ^2 검증을 이용하는 방법과 적합도 지수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그러나 χ^2 검증은 표본 크기에 민감하고, 영가설에 대해 너무 엄격하므로 χ^2 검증에 전적으로 의존하여 모형을 평가하지는 않는다. 본 연구에서는 표본 크기에 민감하지 않고, 모형의 간명성을 고려하였으며, 적합도 평가지수가 확립된 RMSEA와 TLI를 통해 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였다. RMSEA 값은 .05 이하(Browne & Cudeck, 1993) 또는 .06 이하(Hu & Bentler, 1999)이면 모형의 적합도가 좋은 것으로 해석한다. TLI의 경우 그 값이 .90이상이면 적합도가 좋다고 할 수 있다[26][31].

본 연구의 측정모형의 적합도는 $\chi^2 = 378.834(df=73)$, $p=.000$ 으로 카이제곱 통계량이 유의미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또한 적합도 지수 TLI=.811, CFI=.869, RMSEA=.052(90% LO .047 ~ HI .057)로 좋은 적합도로 나타나 잠재변수들을 측정하는데 적합하게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4. 측정모형의 분석결과

경로	비표준화 계수 (B)	표준화 계수 (β)	S.E.	C.R. (t)
블로그-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이용	.537	.468	.040	11.968***
SNS-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이용	1.000	.616	-	-
카페-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이용	1.059	.663	.083	12.724***
스포츠/야외-대안활동	1.000	.495	-	-
친교-대안활동	.942	.470	.078	12.052***
사회/정치-대안활동	.240	.287	.028	8.489***
종교-대안활동	.456	.276	.056	8.212***
창작적 취미-대안활동	1.019	.505	.081	12.543***
공연/문화관람-대안활동	.856	.609	.063	13.625***
스포츠관람-대안활동	.324	.339	.034	9.667***
쇼핑-대안활동	.680	.420	.061	11.232***
인터넷강제-강제정도	.829	.618	.279	2.969
게임강제-강제정도	1.000	.744	-	-
$\chi^2(df, p)$		378.834(73; .000)		
TLI		.811		
CFI		.869		
RMSEA		.052		

*** $p < .001$

3.3.5 구조모형 분석

측정모형을 통해 측정변수가 잠재변수를 적합하게 측정하고 있음을 확인한 후, 구조모형을 분석한 결과, 모형의 적합도는 $\chi^2 = 378.834(df=73)$, $p=.000$ 으로 카이제곱 통계량이 유의미한 수준이었고, 적합도 지수 TLI=.811, CFI=.869, RMSEA=.052(90% LO .047 ~ HI .057)로 나타나 본 구조모형이 자료를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본 연구에서 소셜 네트워크 이용이 미디어 이용시간에 미치는 영향에서 대안활동과 강제정도를 매개변수로 설정한 구조모형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의 [표 5]과 같다.

표 5. 구조모형의 경로계수 추정치

경로	비표준화 계수(B)	표준화 계수 (β)	S.E.	C.R.(t)	p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이용-대안활동	1.765	.409	.207	8.533	***
대안활동-미디어 이용시간	.164	.030	.198	.827	.408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이용-보호자의 이용제한	-.002	-.001	.060	-.030	.976
보호자의 이용제한-미디어 이용시간	-1.785	-.115	.625	-2.855	***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이용-미디어 이용시간	4.481	.187	.910	4.925	***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이용과 미디어 이용시간과의 관계에서 대안활동과 보호자의 이용제한이 유의미한지를 검증하기 위해 Sobel의 Z test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a: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이용→대안활동], [b: 대안활동→미디어 이용시간]과 [c: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이용→보호자의 이용제한], [d: 보호자의 이용제한→미디어 이용시간]의 매개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매개효과 ab와 cd의 표준오차 공식은 다음과 같다. Sobel test를 통한 Z_{ab} 값과 Z_{cd} 이 1.96보다 크거나 -1.96보다 작으면 영가설이 기각되어 매개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본다(Sobel, 1982). 본 연구에서는 Z_{ab} , Z_{cd} 값은 각각 .804, .033으로 1.96보다 작으므로 대안활동과 보호자의 이용제한의 매개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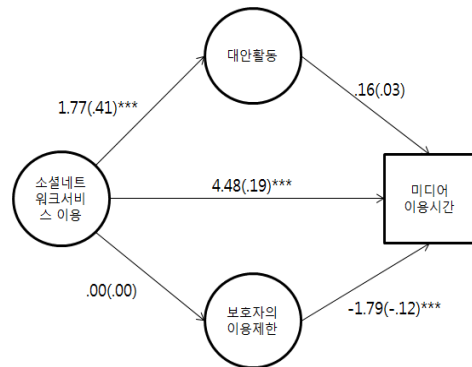


그림 2. 구조모형 분석결과(1)

그래서 비교모형으로 직접효과를 제거한 문항을 설

정했고, 측정모형을 통해 측정변수가 잠재변수를 적합하게 측정하고 있음을 확인한 후, 구조모형을 분석한 결과, 모형의 적합도는 $\chi^2 = 403.854(df=74)$, $p=.000$ 으로 카이제곱 통계량이 유의미한 수준이었고, 적합도 지수 TLI=.799, CFI=.859, RMSEA=.053(90% LO .048 ~ HI .058)로 나타나 본 구조모형이 자료를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본 연구에서 소셜 네트워크 이용이 미디어 이용시간에 미치는 영향에서 대안활동과 강제정도를 매개변수로 설정한 구조모형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의 [표 6]과 같다.

표 6. 구조모형의 경로계수 추정치

경로	비표준화 계수 (B)	표준화 계수 (β)	S.E.	C.R. (t)	p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이용→대안활동	1.839	.421	.212	8.694	***
대안활동→미디어 이용시간	.717	.129	.173	4.144	***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이용→보호자의 이용제한	-.023	-.016	.057	-.404	.686
보호자의 이용제한→미디어 이용시간	-1.910	-.113	.629	-3.037	.0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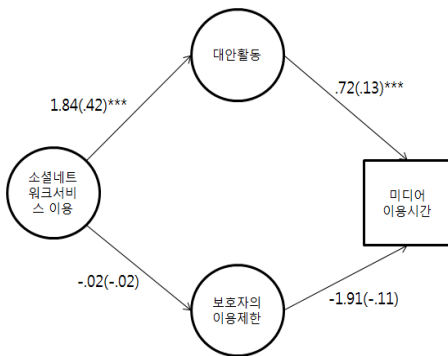


그림 3. 구조모형 분석결과(2)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이용과 미디어 이용시간과의 관계에서 대안활동과 보호자의 이용제한이 유의미한지를 검증하기 위해 Sobel의 Z test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a: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이용→대안활동], [b: 대안활동→미디어 이용시간]과 [c: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이용→보호자의 이용제한], [d: 보호자의 이용제한→미디어 이용시간]의 매개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매개효과 ab와 cd의 표준오차 공식은 다음과 같다. Sobel test를 통한 Z_{ab} 값과 Z_{cd} 이 1.96보다 크거나 -1.96보다 작으면 영가설이 기각되어 매개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본다(Sobel, 1982). 본 연구에서는 Z_{ab} , Z_{cd} 값은 각각 3.75, .040으로 Z_{cd} 값은 1.96보다 작으므로 보호자의 이용제한의 매개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지만, Z_{ab} 값은 1.96보다 크므로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이용과 미디어 이용시간과의 관계에서 대안활동의 매개효과가 있었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많이 이용할수록 대안활동 시간이 늘어나고, 대안활동이 미디어 이용시간을 수준을 결정하는데 정적 상관이 있었다.

분석 결과,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이용은 대안활동에 정적 영향을 미치며($\beta=1.84$), 대안활동은 미디어 이용시간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212$).

I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의 이용이 미디어 이용시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그 구조관계 내에서 부모의 이용통제와 대안활동의 매개효과를 살펴보는 것이다. 이는 청소년의 스마트폰 이용이 확산되면서 특히 SNS 사용 급증에 따라 중독 문제를 예방·해소하기 위한 대안으로 가장 많이 적용되는 야외 대안활동이나 부모의 강제적 이용통제 지도가 과연 어떠한 효과를 보일지를 분석하고자 하는 것이다. SNS 이용을 목적이 미디어 이용시간 증가에 미치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이용이 미디어 이용시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대안활동을 매개로 하여 간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는 대안활동을 통한 대인관계에 대한 욕구가 미디어 이용시간에 정적인 미쳤다고 볼 수 있다.

둘째, 보호자의 이용제한은 미디어 이용시간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호자가 이용제한을

하려고 해도 결국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것이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 근거한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스마트 미디어는 끊임없는 진화를 통해 성인은 물론 청소년들에게 까지 생활에 이미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도구가 되었다. 때문에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글까' 하는 속담처럼 이용자의 과다사용 혹은 중독 문제가 우려되어 이용을 제한하거나, 대안활동 등을 통해 사용량을 줄이겠다는 전통적인 방법은 더 이상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 많이 사용하더라도 일상생활의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청정한 이용환경을 조성해주는 것이 더 중요한 시점이 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최근 '국가정보화기본법'의 개정을 통해 사업자가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의 중독요소를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그린인터넷 인증제도'는 우리 청소년들에게 제공될 인터넷서비스에 적용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겠다.

둘째, 미디어중독을 정신적 질병이 아닌 하나의 문화적 현상으로 이해하고, 이용자가 스스로 미디어를 주체적으로 즐기고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 인식제고 캠페인과 예방교육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 우리는 과거 TV 미디어의 과다시청에 대해서도 우려하던 시절이 있었다. 그러나 더 이상 TV중독을 걱정하는 사람은 없다. 이처럼 미디어가 일상에 녹아들고, 인간이 적응하는 속도는 매우 빠르다. 따라서 사람이 중심이 되는 인(人)터넷을 만들어갈 수 있는 인성교육을 중심으로, 청소년들이 미디어를 건강한 미디어 이용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인터넷중독 예방교육을 지속해야 한다.

셋째, 미디어 역기능은 개인의 문제(사망)에서 가족의 문제(갈등과 반목)를 넘어, 이제 사회적 문제(폭력, 살인 등)가 되었다. 미디어로 인한 역기능 문제는 이용자의 심리, 환경, 성향 등 복합적 요인에 의해 발생되기 때문에, 사전에 개인의 위험요인을 파악하여 방지하고, 보호요인을 발견하여 강화하는 예측 진단이 필요하다. 이는 자가진단을 통해 스스로의 미디어 이용생활을 관리하고, 사회문제로의 확산을 방지하는 유용한 도구가 될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스마트미디어 발달에 따른 청소년의 SNS 이용이 미디어

이용시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2012 한국 미디어 패널조사의 데이터를 활용함에 있어 개인별 중독 수준(금단, 내성, 일상생활장애), 미디어 이용의 제약요인, 해소 욕구 등의 관련 조사의 부족이 아쉽다.

둘째, 본 연구는 일반 청소년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실제 미디어 과다사용 청소년을 충분히 포함시키지 못했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는 실제 미디어 과다사용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와의 차이가 우려되며, 일반화의 어려움이 존재한다.

셋째, 대안활동과 미디어 이용제한의 강도는 부모와 자녀가 느끼는 차이가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부모가 생각하기에는 약한 제한이더라도, 청소년이 느끼기에는 강력한 수준의 강도일 수 있기 때문이다. 기존 연구에서 부모의 강제적 훈육태도는 오히려 청소년 자녀의 불순응과 반발을 유도한다는 결과와 같은 맥락이다. 때문에 부모와 자녀의 조사를 별도로 실시하여 인식의 차이를 살펴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스마트기술의 진화로 이용자는 지속적으로 새로운 서비스에 몰입하게 되고, 전통적인 예방·해소방안인 대안활동이나 부모의 통제방식 등은 오히려 이용행위를 강화하거나 효과가 없을 수 있음을 암시한다. 따라서 추후의 연구들은 스마트미디어의 진화수준을 고려하여 청소년 이용자들의 과다사용을 완화할 수 있는 유의미한 매개요인을 찾는 다양한 시도가 필요하다.

참 고 문 헌

- [1] 강석기, "청소년의 대인관계 태도, 자아존중감, 조절 및 인터넷 중독간 관계의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 한국청소년연구, 제16권, 제1호, pp.165-194, 2005.
- [2] 김동일, 이윤희, 이주영, 김명찬, 금창민, 남지은, 강은비, 정여주, "미디어 이용 대체·보완과 중독: 청소년과 성인의 인터넷 및 스마트폰 사용 행태를 중심으로", 청소년상담연구, 제20권, 제1호, pp.71-88, 2012.
- [3] 김봉섭, 신명희, 임도경, 이인희, "소셜미디어 이

- 용자 유형에 따른 소셜미디어 이용동기 및 활동 유형에 대한 차이 연구”, 사회과학연구, 제29권, 제2호, pp.105-134, 2013.
- [4] 도금혜, 이지민,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 자아존중감, 자기통제, 공격성간의 관계구조”,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29권, 제3호, pp.59-69, 2011.
- [5] 박재성,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현상과 자기통제 기대의 구조적 경로모형에 관한 연구”, 보건교육, 건강증진학회지, 제21권, 제3호, pp.1-17, 2004.
- [6] 박주연, 김희화, “초기 청소년의 인터넷 사용시간과 인터넷 중독성향 간의 관계: 부모훈육방식의 중재효과”, 청소년학연구, 제20권, 제1호, pp.25-45, 2013.
- [7] 배성만, 박종규, 고영삼, “부모-자녀 의사소통과 인터넷 중독과의 관계: 심리, 행동적 문제와 인터넷 사용동기의 이중매개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제9권, 제3호, pp.529-544, 2012.
- [8] 서경현, 김은경, 조성현, “청소년의 스트레스 반응과 행복감에 대한 체육활동 및 인터넷 게임중독의 역할”, 청소년학연구, 제19권, 제5호, pp.115-135, 2012.
- [9] 송은지, “청소년 인터넷규제 개선방향에 대한 제언”,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3권, 제11호, pp.690-698, 2013.
- [10] 양돈규, “청소년의 인터넷중독경향에 따른 대인관계활동 및 만족도의 차이”, 청소년학연구, 제10권, 제3호, pp.481-500, 2003.
- [11] 여정윤, “음악치료활동이 인터넷 중독 청소년의 회복탄력성에 미치는 효과”, 한국음악치료학회지, 제14권, 제1호, pp.21-40, 2012.
- [12] 옥경영, “아동의 인터넷콘텐츠 사용에 대한 접근성과 주관적·사회적 규범의 영향 연구”, 한국콘텐츠학회지논문지, 제13권, 제5호, pp.443-450, 2013.
- [13] 이인희, “대학생 집단의 휴대폰 이용동기에 관한 연구”, 한국방송학보, 제15권, 제3호, pp.261-293, 2001.
- [14] 유비, “청소년의 동아리 활동이 인터넷 게임중독 수준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복지연구, 제15권, 제2호, pp.417-441, 2013.
- [15] 윤명숙, 송해숙, “중학생의 충동성과 인터넷게임 중독관계에서 부모, 친구, 교사 애착변인들의 매개효과검증”, 사회과학연구, 제27권, 제1호, pp.227-253, 2011.
- [16] 이동수, 김효순, 김은희, “구조방정식모형을 통한 청소년 인터넷 환경이 중독에 미친 실증적 분석”, 한국컴퓨터교육학회지, 제14권, 제3호, pp.249-257, 2009.
- [17] 이만제,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 수준에 따른 감성지능 및 대인관계성향 차이”, 한국콘텐츠학회지논문지, 제9권, 제11호, pp.201-211, 2009.
- [18] 이상균, “부모의 양육행동은 청소년자녀의 문제행동을 감소시킬 수 있는가?: 조기·후기비행 진입청소년의 비행경로 비교”, 한국가족복지학, 제24호, pp.249-282, 2008.
- [19] 임웅, 김상국, “미디어노출, 생활습관, 신체활동 청소년의 미디어중독 및 BMI의 관계”, 국민건강증진연구논집, 제6권, pp.23-34, 2012.
- [20] 조용호, 장재철, “청소년들의 스포츠활동 참여와 자아존중감 및 인터넷게임 중독성향의 관계”, 한국체육과학회지, 제19권, 제1호, pp.207-218, 2010.
- [21] 최자은, 문수백, “학령기 아동의 인터넷 중독 관련변인들간의 관계구조분석”, 한국보육학회지, 제10권, 제3호, pp.149-168, 2010.
- [22] 한국정보화진흥원, 2012년 인터넷중독 실태조사, 서울: 한국정보화진흥원, 2013.
- [23] 한상철, “청소년의 인터넷 접촉 정도와 중독성향에 대한 조사”, 한국심리학회지, 제9권, 제2호, pp.19-39, 2003.
- [24] 허준, 이윤호, “청소년의 여가활동과 비행의 관계에 대한 연구”, 한국범죄심리연구, 제8권, 제2호, pp.213-240, 2012.
- [25] P. M. Bentler, “Comparative fit indices in structural models,” Psychological Bulletin, Vol.107, pp.238-246, 1990.

- [26] M. W. Browne and R. Cudeck, "Single sample cross-validation indices for covariance structures," *Multivariate Behavioral Research*, Vol.24, pp.445-455, 1989.
- [27] P. J. Curran, S. G. West, and J. Finch, "The robustness of test statistics to non-normality and specification error in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Psychological methods*, pp.16-29, 1996.
- [28] I. Goldberg, *Internet addiction disorder*, Retrieved April 20, 2011, from <http://www.cog.brown.edu/brochure/people/duchon/humor/internet.addiction/html>, 1996.
- [29] D. N. Greenfield,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of compulsive Internet use: A preliminary analysis," *CyberPsychology & Behavior*, Vol.8, No.5, pp.403-412, 1996b.
- [30] M. D. Griffiths, "Technical addictions," *Clinical Psychology Forum*, Vol.76, pp.14-19, 1995.
- [31] L. T. Hu and P. Bentler, "Cutoff criteria for fit indexes in covariance structure analysis: Conventional criteria versus new alternative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No.6, pp.1-55, 1999.
- [32] R. B. Kline,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2nd ed*, NY: Guilford Press, 2005.
- [33] K. MacDonald and R. D. Parke, "Bridging the gap: Parent-child play interaction and peer interaction competence," *Child Development*, Vol.55, pp.1265-1277, 1984.
- [34] F. I. Nye, *Family Relationships and Delinquent Behavior*, Greenwood Press Publishers, 1958.
- [35] G. S. Pettit, J. E. Bates, and K. A. Dodge, "Supportive parenting," *Ecological Development*, Vol.68, No.5, pp.908-923, 1997.
- [36] C. A. Smith and S. B. Stern, "Delinquency and antisocial behavior: A review of family processes and intervention research," *Social Service Review*, Vol.71, pp.382-420, 1997.
- [37] M. E. Sobel, "Asymptotic confidence intervals for indirect effects in structural equation models," *Sociological methods*, Vol.13, pp.290-312, 1982.
- [38] L. R. Tucker and S. Lewis, "A reliability coefficient for maximum likelihood factor analysis," *Psychometrika*, Vol.38, pp.1-10, 1973.
- [39] K. S. Young, *Internet addiction: the emergence of a new clinical disorder*, Paper presented at the 104th Annual Meeting of th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Toronto, 1996.
- [40] K. S. Young, "Psychological of computer use: XL. Addictive use of the Internet: A case that breaks the stereotype," *Psychological Reports*, Vol.79, pp.889-902, 1996.
- [41] K. S. Young, *Caught in the net: How to recognize the signs of internet addiction and a winning strategy for recovery*, NY: John Wiley & Sons, Inc, 1998.

저 자 소 개

김 주 경(Ju-Kyoung Kim)

정회원



응부 책임연구원

- 2006년 2월 : 고려대학교 행정학과(석사)
- 2014년 2월 : 고려대학교 교육학과(박사수료)
- 2007년 10월 ~ 2014년 5월 : 한국정보화진흥원 미디어중독대

- 2014년 5월 ~ 현재 :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정책연구실(아동·청소년분야) 차장

<관심분야> : 미디어 중독, 아동 및 청소년 미디어 이용행태 및 특성, 미디어 이용교육, 자유학기제, 청소년 진로체험 등

이 승 희(Seong-Hee Lee)

정회원



- 2012년 2월 : 건국대학교 교육학
과(석사)
- 2014년 8월 : 건국대학교 교육학
과(박사수료 예정)
- 2012년 2월 ~ 현재 : 한국정보
화진흥원 인터넷중독대응센터

연구원

<관심분야> : 미디어 중독, 아동 및 청소년 미디어 이
용행태 및 특성, 아동·청소년 미디어 교육 등